

요양·한방 병상 제한…광주시, 병상관리 효율성 높인다

시, 제3기 병상·관리계획 시행…필수 의료 병상은 신·증설 가능
한방·일반·요양병원 전국 최다…병상 대비 의료인력 최하위 수준

광주시가 20일부터 과도한 요양·한방 병원의 병상을 지역 수요에 맞게 줄이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병상 확보에 나선다.

광주시가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병상수급기본 시책에 따라 마련된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2023~2027)'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 병상관리계획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됐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4월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현재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2027년 기준으로 전료관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병상

에 대해 병상 신설 및 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광주지역은 2023년 인구대비 한방병원 수가 6.1개로 전국 평균(1.1개) 보다 5.5배에 달하며,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한방병상과 임 수준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 실정에 따라 한방병상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행정절차(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계획 시행 전 접수했지만 불허된 건물을 시행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는 병상 신·증설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정영화 복지간강국장은 "이번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실정에 맞는 병상조정이 이뤄져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병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통령선거 꼭 투표하세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관내 아파트 현관 입구에 선거 돌려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기록관, 국가폭력 아카이브 구축 방향 논의

내일 전남대서 학술회의

국가폭력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집대성 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0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30분 전남대 대학본부 세미나실1에서 제2회 5·18연구자대회 기록세션 '국가폭력 아카이브 구축의 명암'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린다.

기록세션 학술회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전남대 5·18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국가유산청, 광주시, 전남도, 전남대학교 후원한다.

'사회대전환, 나침반으로서 5·18'이라는 대주제 아래 5·18정신이 어떻게 과거의 부정적 유산 청산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성찰의 도구가 되는지 탐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술회의에는 5·18 관련 기관·단체와 국가폭력 관련 기관·단체(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기록연구 관련 기관·단체(국가기록원, 국제기록유산센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련 기관·단체 (세계기록유산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이 참석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송용한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가 '국가폭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표준화 기준 및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송 교수는 국가폭력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시 고려할 기준과 표준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

또 윤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사례를 통한 통합DB 구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장연희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서관은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 국가폭력 기록의 권리와 책임을 묻다'의 주제의 발표에서 국가폭력 기록물의 소유권, 저작권에 대한 현실 문제를 조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방향성을 찾아간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박경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신식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기록연구사, 김태현 한국외국어대 강의교수가 참석, 국가폭력 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국가폭력 아카이브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이번 학술 행사 통해 5·18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기대와 우려, 현실을 넓힐히 돌아보고 향후 5·18이카이브 정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2~23일 이틀간 전남대서 열리는 제2회 5·18연구자 대회는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과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상기후 재난 대응…전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거동 불편자 1대 1 관리 등

전남도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이웃과 지역을 보호하는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를 선발해 운영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마을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작한다. 마을 안전지킴이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며, 재해 위험지역과 위험시설을 직접 살피고 위험징후 발생 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지자체와 함께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을 대피소를 운영하고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각 마을지킴이가 매칭

된 거동 불편자를 1대 1로 관리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전남도는 자율방재단과 이·통장단을 중심으로 22개 시·군 내 재해위험 마을을 선정해 마을안전지킴이를 편성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 시 읍·면·동장은 유선 또는 누리소통망(SNS) 단체방을 통해 안전지킴이에게 실시간 전달하고, 기상과 현장 상황을 즉시 공유한다. 또 공무원과 경찰·지구대·파출소 등과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시군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9억여 원을 투입, 마을 안전지킴이 활동 수당으로 1일 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마을 안전지킴이의 활동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방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장비와 운영비 인센티브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마을 안전지킴이 사업 외에도 시·군에서 운영 중인 청년 자율방재단과 드론 순찰대를 시범 운영 등으로 방재활동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와 속도가 커지는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마을 중심 대응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에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개소

첨단 전파 서비스 원스톱 제공

'한국전파진흥협회 호남권 전파측정센터'가 나주 빛기암혁신도시에 문을 열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권 전파측정센터가 지난 19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호남권 전파측정센터는 전파 환경시험, 전파 혼신·간섭 해소 지원, 제품 전파 성능 분석, 컨설팅 등 국가 차원의 첨단 전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파 측정센터는 그동안 수도권과 충청권, 대·

경권, 동남권 등에서만 운영돼왔다.

전남도는 개소식이 열린 19일 호남권 전파·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남도는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개소로 전파 전문인력 양성, 전파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주 빛기암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광주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전파·융복합 산업 육성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파·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드론·무인아동체, 스마트농업, 해양 IoT(사물인터넷),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과 전파기술 융합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육성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나주 개소와 업무협약은 지역 전파산업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자체의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등 지역의 우수한 전파·ICT 인프라를 활용해 전파·전문인력 양성, 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총-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